

[ 사회 ]

# 2008년부터 타지역 外高 지원 못한다

## 교육부 공영형 학교 시범 운영 학부모들 "선택폭 좁힌다" 반발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은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공영형 학교 시범운영=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 특수목적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어고를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31개 외고는 2008학년도부터 공역자치단체로 한정해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자립형 사립고를 희망하는 경우 학생모집지역을 공역(시·

도)으로 제한하고 2~3개 정도의 학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 운영을 민간단체·대학·공모교장 등에게 개방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공영형 혁신학교 5~10개교를 선정, 내년도부터 시범 운영기로 했다.

우려 목소리도 커=외고 입시를 준비해온 학부모들은 갑작스런 제도 변화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부 이모(43·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며 "좋은 외고 진학을 위해서

구분	일반학교	가칭공영형 혁신학교
운영주체	· 설립 운영권자 동일 (국가, 교육청, 사립법인)	· 설립 운영 분리 (운영주체 다중화) (민간단체 등에 학교운영 위탁)
학생모집	· 원종화지역·교육권 결정·비동종화지역·학교별 선발	· 원종화 유지하되, 협약에 의해 학교별 모집
자율운영	· 학교장의 인사권 제약·승진·전보제에 의한 교원 임용	· 교장 지역 타력적 적용·관도에 의해 우수교사 채용·승진전보제 비확장
교육과정	· 교육과정 운영성 자율제약	· 국민중심기본교육과정 이외 학교 자율·학생특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책무성	· 학교평가시스템 미흡	· 학교평가 여부 평가·책무성강화
지역사회관계	· 지자체를 지역사회의 제도적 협조체제 미흡	· 지자체를 지역사회와 제도적 협조체제 강화

는 주소를 옮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범 운영기간이 2010년 2월까지 연장된 광양제철고 등 자립형 사립고들은 학교가 시범운영을 끝내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게 되는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행정특기자 hwangtae@kwangju.co.kr



18일 밤~19일 새벽 전대 후문 앞에서 열린 한국과 프랑스 응원전에 나온 비르지니·리사·올리비에씨(이상 왼쪽부터).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한국 젊은이들 열광적 길거리 응원 신기해요”

### ■ 전남대후문 응원 프랑스 3인

프랑스와 한국의 2006 독일월드컵 G조 2차 예선 전 반 9분, 앙리가 선취골을 넣자 전대 후문에 모인 1만여 명의 '붉은 악마'들은 절박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응원단 가운데서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와~ 프랑스 만세”를 환호해 눈길을 끌었다. 그들은 올리비에(30·전남대 불어강사), 리사(여·27·조선대 불어강사), 비르지니(여·22·프랑스문화원 강사). 광주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이었다. 이들은 경기가 열리기 7시간 전인 18일 밤 9시, 전대 후문에 왔다. 얼굴에 프랑스 국기를 그리고, 의상도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블루' '레드' '화이트'로 맞춰

입었다. 전대 내내 프랑스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응원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승리, 확실합니다. 지단은 ‘신’이에요.” 올리비에와 리사는 프랑스의 승리를 확신했다. 주변에선 “오~필승 코리아” “대~한국” 등 열정적인 응원전이 펼쳐졌지만 이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비르지니는 “우리나라엔 이런 응원전이 없다.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다. 후만 막바지, 박지성이 골을 넣자 비르지니는 “한국에 살고 있어서 내심 비기기를 버렸다”고 귀띔했다. 자리를 뜨면서 리사는 “월드컵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한국 젊은이들과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World Cup 그라운드 밖 화제

## 기말고사 앞둔 중고생들 나~어떡해!

기말고사를 1~2주 앞둔 중·고생들이 고민에 빠졌다.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 밤잠을 설치면서 신체 리듬을 잃어 수업에도 졸기 일쑤이기 때문. 특히 경기 시청으로 공부시간을 절대적으로 빼앗기자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인터넷 '족보' 및 '족집게' 사이트를 찾아내고 있다.

### 공부시간 뺏기자 '족보 사이트' 찾아방랑

'비타에듀'(www.vitaedu.com)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료 기말고사 시험 특강'과 '내신 진도 문제풀이 강좌'를 제공한다. 고득점을 위한 문제풀이, 서울·논술형 문항 대비 등 서비스가 있다. '유웨이에듀'(www.uwayedu.com)는 '내신 등급 만회를 위한 기말고사 특강'을 오픈하고 학습 전략 가이드를 제시한다. 학습스케줄 관리, 내신관리 서비스까지 단계별로 이뤄진다. '이투스'(www.etoos.com)는 개년정리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풀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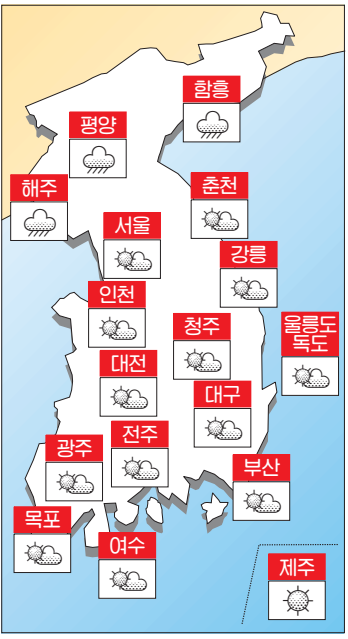
다. 암기활용 전략도 포함됐다. '대성마이맥'(www.ds.co.kr)은 범위에 맞게 교과서별, 단원별로 글라 들을 수 있게 돼 있다. '메가스터디 엠베스트'(www.mbest.co.kr)는 '1학기 기말고사 진도강좌'와 '1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 특강'을 선보였다. '두산에듀클럽'(www.educub.com)에서 개설한 '기말고사 특강'은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4개 목 기출문제 6천 개와 mp3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차두리 어록' 인터넷 검색 1위

어늘·솔직... 폭발적 인기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빠진 차두리가 'MBC 독일월드컵 중계팀'에서 부친(차범근 수원 삼성 감독)과 함께 해설을 하면서 어눌하고 솔직한 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차두리 어록(語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올라두어 올라고 있고,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어록'의 시작은 지난 10일 개막전, 김성주 캐스터가 "1982년 월드컵 기억하시나요?"라고 묻자 차두리는 "그때는 제가 2살..."이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12일 열렸던 호주와 일본 전의 경우 김 캐스터는 호주가 1골을 리드당한 채 전반전을 마치자 차두리에게 "2002년 한국과 미국 전에서도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당시 라커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라고 물었다. 차두리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그때 제가 후보선수여서 라커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해 시청자들의 웃음보를 유발했다. 지난 14일 스페인-우크라이나 전에서는 "저렇게 큰 점수(4:0) 차로 지거나 이긴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분데스리가 하위팀이었기 때문에 큰 점수 차로 많이 쳐 봤습니다"고 "응수"했고, "아는 사람이 나오면 빨리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진간도 들었다. 한국-프랑스 전에서는 "독일의 거의 모든 경기장에서 뛰었지만, 라이프치히 구장에서는 경기해보면 적 없다"는 "솔직한" 답변을 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장마전 막바지 더위 6월 20일

광주	맑음	뒤 흐림	19~29℃
목포	맑음	뒤 흐림	18~28℃
여수	맑음	뒤 흐림	19~26℃
순수	맑음	뒤 흐림	18~28℃
해남	맑음	뒤 흐림	18~30℃
남원	맑음	뒤 흐림	17~29℃
고령	맑음	뒤 흐림	17~29℃
수안	맑음	뒤 흐림	17~28℃
진안	맑음	뒤 흐림	17~30℃
완주	맑음	뒤 흐림	17~29℃
진동	맑음	뒤 흐림	17~31℃
고성	맑음	뒤 흐림	19~30℃
영광	맑음	뒤 흐림	17~31℃
영암	맑음	뒤 흐림	19~30℃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9:04 썰물 < 02:01  
여수 밀물 < 04:01 썰물 < 10:27

날씨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최저/최고	20/25	20/24	20/23	20/24	19/28	18/29

## 바다가 부른다 23일부터 개장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오는 2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장한다. <표> 이번 개장날짜는 예년에 비해 20일 이상 앞당겨진 것으로, 타지역 해수욕장의 경쟁에서 피서객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명사십리의 경우 지난해 말 연륙교가 개설돼 완도읍에서 뱃길로 40분 걸리던 거리가 5분으로 단축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해수욕장 텐트를 80여 동 설치키로 했으며 주차공간도 기존의 800대에서 1천200대 규모로 확대하는 등 각종 부대시설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전국의 18%인 총 48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초 개장한다. /홍행기자 redplane@

### ■ 전남 도내 해수욕장 개장기간

시군	유명도	해수욕장명	개장기간	
목포	달 동	외달도	7.15~8.20	
	여수	만흥동	만성포 7.8~8.20	
		돌산읍	빙죽포 7.8~8.20	
고흥		회양면	장동 7.8~8.20	
		금산면	익금 7.18~8.18	
		도화면	발포 7.22~8.20	
		봉래면	니로도 7.20~8.20	
			덕흥 7.14~8.25	
		영남면	남월 7.14~8.20	
		두원면	대전 7.14~8.15	
		보성	회양면	울포 7.7~8.28
		장흥	안양면	수문 7.6~8.15
		해남	송지면	송호 7.15~8.15
무안			사평 7.15~8.15	
		회산면	송평 7.15~8.15	
		현경면	홍동 7.15~8.15	
		망운면	틀머리 7.15~8.15	
			조금나무 7.15~8.15	
		함평	함평읍	돌머리 7.7~8.15
		영광	홍농읍	가미리 7.14~8.20
	완도		금일면	명사십리 7.12~8.15
			신지면	명사십리 6.23~8.20
				동고리 7.10~8.30
		익산면	가시리 7.10~8.20	
			청산면	지리 7.14~8.15
		신흥리	7.14~8.15	
		보길면	중리 7.15~8.20	
			동리 7.15~8.20	
			예송리 7.15~8.20	
		생일면	금곡 7.14~8.15	
		고군면	가계 7.15~8.31	
		익산면	금강 7.15~8.31	
		임화면	서암 7.15~8.31	
		조도면	관매 7.15~8.31	
			신전 7.15~8.31	
		중도면	우전 7.20~8.30	
		임자면	대량 7.10~8.30	
		지은면	백길 7.15~8.20	
			분계 7.15~8.20	
		비금면	원평 7.15~8.20	
			하남면 7.15~8.20	
		도초면	시목 7.15~8.20	
			우이둔목 7.15~8.20	
		하의면	신도 7.20~8.20	
		신의면	황성 7.15~8.20	
		임대면	추포 7.15~8.20	
		축산면	배낭기미 7.20~8.20	
			홍도 7.20~8.20	

**7급 공무원** 남경철직  
**9급 공무원** 여영철직  
**공인** 공개사

6월 26일

**전남고시학원**

1062-222-5165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주)태양주박개발 | TEL 1062-262-0606

**직원모집** 미용그룹 세종에서 유능한 매니저를 모십니다.

1062-223-1088

**전립선 J2V**

대진바이오테크놀로지 호남지사 1588-3871